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1. 12. 10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핀란드, 폭탄·총기 테러 모의 극단주의자 5명 체포
 - 12.3 핀란드 경찰은 남서부 칸카안파에서 폭탄·총기테러 공격을 모의하던 20대 중반의 극우 극단주의자 5명*을 체포했으며, 이는 핀란드에서 적발된 첫 극우 테러혐의 사건이라고 발표
 - * '19.12월 다량의 총기·탄약·폭발물을 소지하다 체포된 후 2년간 정부기관이 감시
- 유럽연합(EU), 아프간에 '공동외교사절단' 파견 추진
 - 12.4 「마크롱」 프랑스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인도주의적 위기 및 이민자 문제 등 해결을 위해 “아프간내 특정장소에 유럽 각국 대사들이 함께 상주하는 방안을 고려 중”이라고 언급
 - * EU 국가들은 지난 8월 탈레반의 카불 점령 후 자국 군대와 함께 외교관들도 철수
- 터키, PKK(쿠르드 노동자당) 테러조직원 사살
 - 12.7 「슐레이만 소일루」 터키 내무장관은 남동부 산리우르파州에서 터키 보안군이 드론을 활용한 대테러 작전을 통해 수배 중인 PKK 테러리스트 1명을 사살하고 조직문서 등을 압수했다고 발표
 - * PKK는 터키 동부 및 동남부 지역에서 근거지 마련 지속 시도 중

미주

- 콜롬비아, 무장혁명군(FARC) 前 사령관 사망
 - 12.6 외신은 「에르난 다리오 벨라스케스」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(FARC) 前 사령관이 콜롬비아-베네수엘라의 국경지대인 아푸레州에서 반군의 매복 공격으로 사망하였다고 보도
 - * 반면, 콜롬비아 군부는 언론에 보도된 사망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언급

아 · 태평양

- 파키스탄, 외국인 살해 혐의로 이슬람 극단주의 폭도 100여명 체포
 - 12.3 파키스탄 경찰은 시알코트지역에서 '예언자 무하마드의 포스터를 훼손했다'는 이유로 스리랑카인 공장 매니저를 폭행한 후 산채로 불태워 살해한 이슬람 폭도 100여명을 체포했다고 발표
 - * 최근 파키스탄내 이슬람 신성모독 행위자에 대한 군중들의 공격·폭동 급증
- 대법원, 주한 佛대사관 '협박전단' 부착 무슬림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
 - 12.6 대법원은 '20.11.1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'무슬림을 모욕하지 말라'는 내용의 협박 전단을 붙인 외국인 무슬림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발표
 - * 법원은 '외국사절 협박'이 아닌 일반 '협박' 혐의만 유죄로 인정

중 동

- 이슬람협력기구, 아프간 지원을 위한 '임시회의' 개최 예정
 - 12.5 이슬람협력기구*(OIC)는 극심한 경제난에 빠진 아프간에서 새로운 혼란과 대규모 난민사태가 촉발될 수 있다며, 오는 19일 파키스탄에서 아프간 지원을 위한 임시회의**를 개최 예정이라고 발표
 - * '69년 창설된 이슬람권 최대 국제기구로 사우디아라비아 등 57개국 가입
 - ** 同 회의에는 OIC 회원국뿐 아니라 미·영·프·중·러시아 등 대표단도 초청 예정
- 시리아, '지하드 마약'* 밀수출로 외화 조달
 - 12.5 NYT는 시리아에서 생산되는 마약 '캡타곤'이 시리아의 최대 외화벌이 수단이 되었으며, 同 마약의 제조·수출을 「바샤르 알아사드」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총괄하고 있다고 보도
 - * ISIS 대원들이 복용해 'IS 마약' 또는 '지하드 마약'으로 지칭

美, 뉴욕 맨하튼 지하철 자폭테러

- '17.12.11 오전 7시경 뉴욕市 맨하튼 타임스퀘어 인근 지하철역사에서 「아카데미드 올라」*(27세)가 사제폭탄을 이용한 자살폭탄테러를 시도해 3명 경상 및 범인 중상
 - * 방글라데시 출신 이민자로 '11년 미국에 입국해 합법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확인
- 조사 결과, 범인은 사제폭탄을 허리에 두르고 자살폭탄테러를 시도하였으나, 제작 미숙으로 인해 화약류는 점화되었지만 파이프 자체는 폭발하지 않아 본인은 중상을 입고 주변 시민 몇 명이 경상에 그친 것으로 파악
 - 범인은 '14년경 ISIS 선전물을 접하고 극단주의 사상에 동화된 후, 1년 전부터 스스로 폭발물 제조법을 연구하여 금속나사를 채운 파이프 폭탄을 완성하여 범행을 시도한 '외로운 늑대'형 테러범으로 조사
 - * 범인은 범죄경력이 없고 과거 테러세력 연계 여부 등과 관련해 관계당국의 관찰대상자도 아닌 것으로 파악되며, 단독 범행인 것으로 확인

< 파이프 폭탄(Pipe bomb) >

- (정의) 사제폭발물의 한 종류로서 폭발압력 증대를 통한 살상력 극대화를 위해 끝단이 막힌 금속류 파이프를 폭탄용기(case)로 사용하는 폭발물
- (구성) 타이머(점화버튼), 기폭장치, 화약(화약), 밀폐된 금속류 파이프 등으로 구성되며, 추가적으로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 다량의 못·나사·금속 조각을 파이프 안에 넣거나 외부에 부착
- (원리) 타이머 작동 또는 직접 점화버튼 작동시 1차 기폭장치(뇌관) 폭발후 2차로 화약(화약류)이 폭발, 파이프 내부압력이 증가하여 응축되다가 임계압력 도달시 파이프가 파괴되면서 깨어진 파이프 조각과 부가된 못·나사·금속조각이 주변에 비산되어 인명 살상
- (비교) △응축압력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'압력밥솥폭탄'과 유사, △못·금속조각으로 살상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'못(nail) 폭탄'과 유사

